



시·공간 제약없는 신행... “스마트 해졌어요”

PC통신서 SNS까지... 불교 IT콘텐츠 변모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소비한다. 불교 역시 20여 년의 시간동안 이런 IT 생태계에 적응해왔고, 나름의 환경을 구축했다. 본지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변화와 현황,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년 9월 데이콤 천리안의 전신인 'PC-Serv'의 불자 동호회로 시작한 '천리안 불교동호회(이하 천불동)'였다. 1992년 6월에는 '하이텔불교동호회(이하 하불동)'이 창립됐다.

인터넷이 보편화 된 이후에도 인터넷으로 자리를 옮겨 자체적인 온오프라인 신행 활동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던 것일까. 현재 최초 온라인 신행단체 천불동은 2002년 폐쇄됐다. 그나마 회원 수 99명의 하불동이 아직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당시 세대에게는 위안이 되고 있다. 실제 하불동은 '번개(인터넷을 통해 급히 약속을 잡고 만나는 일) 모임'과 정기 일요법회, 산행 등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신행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이 가져온 신행의 변화

2000년대 들어 인터넷과 PC가 활발히 보급되면서 검색 엔진을 탑재한 포털사이트들이 잇달아 문을 열게 된다. 이들 포털 사이트들은 '카페'라는 시스템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지고 있는 누리꾼끼리 모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불교 관련 카페들

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들 카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만 1만여 곳이 있으며, '네이버'에는 5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음 카페 '나무아미타불'과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등은 인터넷 카페 문화가 시들해진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장수 인터넷 신행 동호회들이다. 인터넷 상용화는 개인 홈페이지 제작 붐이 일면서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참여도 이어졌다. 성법 스님은 2001년 불교경전전문 사이트 '세존'을 오픈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봉 거사의 '명상 아카데미', 구선 스님의 '관수련회', 상명대 박석 교수의 '바라보기 명상' 등의 수행 사이트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불교계 각 종단과 유명 사찰들도 각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중 소식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통한 법문, 교리 강좌들이 가능해졌고, 조계종 포교원은 2009년 종단 사이버불교대학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불교계 주간 언론들도 홈페이지를 잇달아 구축했다.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불교신

천리안 불교동호회가 시초

인터넷 카페 1만 5천 곳

사찰 홈페이지, 강좌 상시 운영

현재 SNS로 세상과 소통

창작 콘텐츠 개발·소비 미흡

인적 인프라 구축 선행과제

문(www.buddhistnews.net), 범보신문(www.beopbo.com), 등 불교계 신문들은 주간신문의 한계를 넘어 일간 또는 실시간 체제로 뉴스를 현재까지도 서비스하고 있다.

내 손안의 PC, 세상을 바꾸다

2000년대 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며 세상은 전환점을 맞는다. 모든 사람들이 PC가 아닌 손 안의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정보와 친구와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스님과 재가불자, 일반인의 1:1 소통이 가능해져 적지 않은 반향을 가져왔다. 특히

SNS상 스님들의 진솔한 글과 단상, 상담들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힐링'이라는 사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변화된 신행풍토를 가져왔다. 현재 적지 않은 사찰들과 불교계 단체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찰과 불교계 소식, 불교문화콘텐츠를 전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의 경우 '헬로 달마 스쿨'을 비롯해 '독경 반야심경'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현재에도 어린이 포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준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적한 사이버 불교의 과제

대부분의 사찰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해인 스님과 같은 SNS 스타를 배출한 불교계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중점으로 한 웹 2.0 시대에 불교계 디지털 콘텐츠는 1차 자료를 전산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아직 불교계의 수준이 웹 1.0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대 사회학과 겸

임교수는 "현재 다양한 문헌이나 사진, 법문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콘텐츠의 원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원형 콘텐츠를 활용할 창작 콘텐츠의 개발이나 소비는 미흡하다"며 "불교계 주요 기관이나 사찰 등의 인터넷 서비스는 일종의 홍보나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불교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주요 종단과 기관들의 공격 투자를 통해 불교 앱과 콘텐츠를 개발해 공공재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촉매로 하여 앱이나 콘텐츠 이용자층을 형성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며 "SNS의 경우 관세 음보살이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고 들어주시는 것처럼 불자들과 일반 대중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 SNS가 종단의 스피커나 소식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SNS 등 변화하는 IT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 개발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창작 작품들을 받는 등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PC통신, 온라인 불교를 열다
불교계 최초 '온라인 신행단체'는 1991

수풀림 천/연/감/염/색

대나무숯베개

3개월 무이자

■ 제조 : 수풀림숯침대(주)
■ size : 45, 22, 7.5cm
■ 가격 : 천연베개 ₩110,000 2점세트 ₩200,000

흡착력이 뛰어난 대나무숯의 효능! 천연 감염색의 신비!

원적외선

음이온

항균

수분흡착

냄새제거

전자파차폐

아토피

수풀림대나무 숯 베개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의 왕 대나무를 채취하여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숯 제조 기술로 1,000℃ 이상 고온에서 소성한 대나무 숯과 항균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굴참나무를 넣어 효능을 극대화한 천연베개입니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안감 걸감 모두 감으로 유명한 청도군의 특산물인 「천연감염색천」을 사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풀림대나무숯베개」는 100% 국내산으로 국내에서만 제작되는 친환경 인체친화형 천연 숙면 베개입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정제용 대나무 숯은 몸속의 나쁜 피로물질을 흡착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하여 숙면을 취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 피부에 직접적인 연관있는 베개를 선택하실 때에는 자의적 효능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베개가 좋은 베개입니다.

제품신청 080-300-1080

NAVER 검색하기 대나무숯베개 추천번호

천연감염색 대나무숯베개의 효과

- * 대나무숯은 차운 기운이 방출되어 머리를 맑게 하여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 * 대나무숯은 땀이나 침 등의 수분을 흡착하여 늘 뽁뽁순순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 대나무숯은 흡착기능과 정화능력이 뛰어나 몸속의 피로물질을 흡착 정화해줍니다.
- * 천연감염색천은 청도군의 특산물로 검증된 친환경 제품입니다.
- * 너무 딱딱하지 않게 굴참나무 껍질을 넣어 알맞은 경도로 제작되어 포근함을 유지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두통/불면증/아토피/만성피로/목디스크/수험생/직장인/선물용/혼수용

■ 전국취급점모집 담당 : 010-3863-3557